

월요객석



정재희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명예교수(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부대표)

안전이 기업경영의 핵심요소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해외 몇 개 기업의 사례를 통해 안전이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 및 품질 등을 높여 이윤창출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경영의 핵심요소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기업은 찰스 듀히그의 저서 '습관의 힘'에 소개된 알미늄 관련 세계적 기업인 알코아 이야기다. 1987년 알코아 회장에 취임한 폴오닐이 투자자를 앞에서 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여러분에게 먼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알코아에서는 상당수의 노동자가 심한 상해를 입어 근로일수를 상실합니다. 물론 우리 안전 기록은 미국 전체 노동자 평균 안전 기록보다 양호합니다. 특히 우리 노동자들이 1500도가 넘는 금속을 다루고 사람의 팔을 끊어 버릴 수도 있는 기계를 다루는 점을 고려하면 무척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코아를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기업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사고율 제로를 목표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이어갔다. "알코아의 현상학을 알고 싶다면 근로 안전 수치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산재율을 낮추어왔습니다. 우리가 조직 전체에서 습관을 얼마나 바꾸었나 보여 주는 지표가 바로 안전 수치입니다. 따라서 안전 수치로 우리는 평가 받아야 합니다."

오늘이 최고 경영자로 취임한지 1년 만에 알코아는 기업 역사상 최고의 이익을 올렸다. 오늘이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난 2000년에 알코아의 연간 순이익은 취임 전보다 5배나 증가했으며, 시가 총액은 270억달러(약 30조 원)까지 상승했다. 오닐이 취임하던 날 알코아에 100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배당금만 100만 달러(약 11억 원)를 받았을 테고 주식의 가치는 5배 올랐을 것이다. 이 같은 성장의 비결은 알코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기업이 된 것과 무관치 않다. 오닐이 취임하기 이전의 알코아는 거의 모든 공장에서 일주일에 한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오닐의 안전 계획이 시행된 후 대부분의 알코아 공장에서는 수년 동안 사고 때문에 근로일수를 상실하는 노동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당연히 알코아의 산재율은 미국 평균의 20분의 1로 떨어졌다. 어떻게 오닐은 덩치도 크고 구조적으로 답답하며 잠재적인 위험도가 높은 기업을 안전의 요새이자 황금알을 낳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의 습관을 공략, 변화가 조직 전체에 파급되도록 독려했기 때문이다.

오늘은 목욕의 가장 뒷자리에 '안전'이라고 쓰고, 산재율 제로라는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공장 재해율 제로! 산재율 제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마음에서 새겨야 할 목표였다.

직원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산재가 발생하는 이유를 먼저 파악해야 했다. 그러려면 생산 공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연구해야 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품질 관리와 효율적인 작업 공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했다. 결국 적절한 작업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이 적정하게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즉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알코아는 세계에서 가장 쾌적하고 능률적인 알루미늄 회사가 되어야 했다.

오늘은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시한다고 알코아의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는 단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새로이 구축한 반복 행동이 조직 전체로 확대되자 비용이 자연스럽게 절감됐고 품질이 향상됐다.

따라서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었다. 쇳물이 튀어 노동자가 다치면 쇳물 주입 시스템을 재설계해서 재해율을 낮췄다. 이렇게 하자 원료 손실이 줄어들어 원가가 절감됐다. 기계가 고장 나면 즉시 교체했다. 따라서 고장 난 장비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줄어들었고, 나중에 밝혀지긴 했지만 장비 불량이나 알루미늄 품질 저하의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품질도 향상됐다.

두 번째 기업은 U.S.Steel이다. 1906년경 미국의 철강업이 불황의 늪에 처해 있을 때 이 회사의 회장인 E. H. 헤리가 그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을 제1 안전, 제2 품질, 제3 생산으로 정하고 다양한 안전대책과 안전작업방법 등을 적용하여 관한 시책을 강화해서 시행한 결과, 제품의 품질도 생산량도 향상되어 많은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안전제일'이라는 슬로건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기업은 듀퐁이다. 듀퐁은 처음에는 영국에서 화학공장으로 시작해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도 기업의 핵심 가치를 안전으로 두고 노력한 결과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안전기업으로 성장했다.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안전을 경영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社 說

중소 전기공사업체도 을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는 누구를 말할까. 비정규직,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의 등쌀에 못 배겨나고 골목의 소상공인들 모두를 '을'이라 부르고 경제적 약자라고 한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대부분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또는 보듬음은 역대 정권을 거쳐가며 누누이 강조됐지만, 이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했다.

감상조 공영위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갑질'을 없애겠다며 그 타겟으로 대기업을 지목했다. 말처럼 갑질은 없앨 수 없을 것이다. 재벌은 영원하고 권력은 유한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런 과감함이 좋다. 그동안 많은 관료들이 재벌 대기업과 적당히 타협해 가며 대기업을 보호하고 이익을 나누며 지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기업의 갑질에 한숨을 쉬고 있지만, 숨소리조차 크게 못 내며 인내하고 있는 분야 중 한 곳이 전기공사업체다. 중소기업공사업체 많은 회사들은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을 받아 일하며 회사를 경영한다. 시스템을 보면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 등록을 한 후 등록된 업체끼리 입찰경쟁을 통해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받는다. 입찰은 금액과 상관없이 대부분 최저가낙찰제 형

태로 진행되고, 업체들의 경쟁이 심해지면 공사금액은 턱없이 낮아진다. 최저가로 업체가 결정되다 보니,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적정노임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정부가 정한 품셈의 10% 밑에서 노임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전기공사업체 자체가 노임과 시공자에게 의해 공사비가 결정되는 구조인 것을 감안하면 일을 해도 공사업체는 이익을 낼 수 없는 악순환의 구조가 연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대형 건설사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손해를 보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반문할 수 있지만 회사에 고용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해선 손해를 보더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 대기업에서 일한 실적을 바탕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쉽사리 포기를 못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을 빚대어 중소기업 CEO는 '현재 전기공사업체는 멈출 수 없는 자전거를 탄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이제 달릴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많은 이익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해서 손해만 보지 않게 해달라는 절규에 대해 공영위가 답을 해줄 차례다.

로봇, 드론 기술시대를 여는 전기시공 분야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될 것 같았던 전력설비 점검 현장에도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다. 사람의 손과 눈으로 보는 것 보다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고 하니 설비 운영 측면에선 기대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위험 현장으로 인식되었던 전기공사 현장에서 일부지만 로봇기술이 접목되고 있어 이에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요즘 떠오르는 것이 드론이다.

드론은 차량이 진입하기 힘든 산악지형이나 천천을 횡단하는 지역, 지상에서는 점검이 어려운 전력설비의 윗부분 등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다면 사람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사전에 계획된

경로를 비행하며 설비의 이상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물론 통신 두절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출발지점으로 귀환한다고 하니 기대될 수밖에 없다.

또 배전공사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간접활선공법도 9월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고압 배전선로를 손대지 않고 로봇팔을 이용한 작업이 가능해지면 만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력산업 전체의 분위기가 친환경, 안전에 방점이 찍히는 상황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고려한 공법인만큼, 관련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데스크칼럼



송세준
산업경제팀장

했다. 10·26사태 열흘전인 1979년 10월 16일, 옛 전경련 회관 준공에 맞춰 박정희 전 대통령은 '創造 協同 繁榮'이라고 쓴 휘호를 선물했다. 지금도 여의도 전경련 사옥엔 기념석이 세워져있다.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박정희 시대 18년을 상징한다.

공정거래법이 도입되고 지금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5공화국 초기인 1981년이다. 1987년 개헌에는 '경제민주화' 정신이 헌법에 담기기도 했다. 그러나 재벌권력은 점점 팽창했고 5년마다 바뀐 정치권력과의 유착도 더욱 노골화됐다.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재벌개혁은 변곡점을 맞는다. 경제적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정치적 개혁의 성공여부는 '흙씨(주도세력)'와 '덧밭(지지 기반과 세력)', 덧밭에 내려앉은 흙씨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기온(시대적 분위기)'의 성숙'에 달려있다는 게 정설이다.

흙씨는 개혁의지, 덧밭은 국민적 지지, 기온은 시대적 열망의 다른 이름이다. 셋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현대사를 논외로 치더라도 조선의 개혁가 조광조, 실향과, 대원군, 개화파는 시대를 앞서나간 선각자들이었지만 그들의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다. 덧밭에 맞지 않는 흙씨를 파종해 받아되지 않거나 덧밭도 아닌 곳에 씨를 뿌려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벌개혁(Chaebol Reform)

두 개 축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종 정책이 추진됐지만 매년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진 못했다. 참여정부의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파동이나 도입과 폐지를 반복한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대표적이다.

과거 속한 재벌개혁이 좌초된 원인은 다양하다. 개혁 주체의 의지가 약하거나, 기득권층의 저항과 위협이 통한 적도 많다. '이러다 경제가 망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국민적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한 것도 컸다. 경제활성화 또는 성장의 반대개념으로 임혀질 때, 시비(是非)를 떠나 이를 뒤집을 논거도 부족했다.

난이도로 치면 최상급의 문제가 재벌개혁인데, 개혁에 대한 저항은 상수(常數)로 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을 고려할 때 현 정부는 적어도 흙씨와 기온의 관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시기를 맞았다. 그래서 관건은 역시 덧밭이 아닐까 싶다.

주도세력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전제에 오류가 없다면, 현 정부 재벌개혁의 성과를 권 열쇠는 이에 동의하는 국민적 지지의 깊이와 견고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심을 얻지 못한 개혁은 비록 정당할 수는 있어도, 역사가 말해주듯 한낱 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전기공사사업 면허 (양도·양수·합병) 전문기업

기업인수·합병 전문기업 보은 M&A에 믿고 맡기십시오!

1. 신규등록 및 법인분할, 합병, 양도양수업무
2.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
3. 전기공사업 신규 3년경과후 등록기준신고
4. 법인설립 및 기업진단 업무
5. 자본금 증자 및 공제조합 출자 상담
6. 결격사유로 인한 행정처분 및 면허반납
7. 한전 배전 단계 실적업체 업무상담
8. 한전 송전 실적업체 업무상담 (복도제, 4도제, 6도제)
9. 철도 신호 및 전차선 실적업체 업무상담

(주)보은M&A
www.boeunmna.com
TEL 02-3482-3304
FAX 02-6944-8472
H. P 010-4372-2266

- ◆ 공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 ◆ 면허 양도 후 공법인 양도양수 가능합니다
- ◆ 빠르고 안전하게 회사를 인수받고 싶으십니까
- ◆ 회사를 제대로 평가받고 매도하고 싶으십니까

공사업 양도양수 전문!

양도양수 전기공사업 분할합병
 법인전환 통신평사업 신규등록
 소방공사업

"1:1 맞춤 출장 상담 가능 ☎ 010-5268-4436"

(주)건설뱅크 http://www.clbank.co.kr

서울본사 TEL 02-567-8986 FAX 02-567-3453
 경남지사 TEL 055-763-6677 FAX 055-763-6678